

지금 예능계는 '1세대 아이돌' 전성시대

'핑크' 이효리 ▶▶▶ 털털하고 솔직한 매력...독보적 '예능 여신'

'캠핑클럽'에서 변함없는 예능감 뽐내 유재석과 예능서 재회...케미 기대돼

21년째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1998년 그룹 핑클의 멤버로 데뷔해 '국민요정'이 됐고, 2003년 솔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섹시스타'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또 하나의 별명이 있다면 바로 '예

능 여제'다. 2002년 KBS 2TV '해피투게더', 2008년 SBS '일요일이 좋다' 등으로 감각을 뽐냈다.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해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접은 활동을 최근 다시 잇고 있다. 현재 방송 중인 JTBC '캠핑클럽'을 지나 24일부터 tvN '일로 만난 사이'를 선보인다. 특유의 솔직함과 털털함으로 친근한 그는 한때 파트너였던 방송인 유재석과 재회해 기대를 모은다.



'신화' 에릭 ▶▶▶ 무엇이든 척척...예능계 '국민 일꾼'

'현지에서 먹힐까?' 아무진 손재주 돋보여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선 반전매력 대호감

최근 tvN '현지에서 먹힐까?' 시리즈 등 해외에서 장사를 하는 예능프로그램이 붐몰을 이루면서 주목 받는 인물이다. 각종 요리를 척척 해낼 만큼 아무진 손재주와 현란한 영어 실력이 토대가 된다.

미국에서 중식을 파는 '현지에서 먹힐까?'에서는 이연복 셰프의 오른팔이 됐고, 스페인으로 떠난 '세빌리아의 이발사'에서는 열정 넘치는 이발소 사장으로 변신했다. 1998년 처음 나선 그룹 신화의 멤버로서 무뎠던 이미지가 강했지만,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국민일꾼'으로 거듭났다. 잘 생긴 외모 뒤에 숨겨둔 장난기로 분위기를 푸는 반전매력도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는 요소다.



'god' 박준형 ▶▶▶ “뽀~” “왓썸맨?”...친화력 만큼은 최강

서툰 한국말과 친화력이 '트레이드 마크' 채널A '지구인 라이브' 등 올해 6편 소화

1999년 god 멤버로 데뷔할 당시만 해도 '만형'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예능 강자'로 우뚝 섰다. 서툰 한국말과 함께 시시때때로 튀어나오는 감탄사인 “뽀~(BAAM)!”은

트레이드마크다. 어떤 출연자를 만나도 “왓썸맨(What's up, Man)?”을 외치며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친화력도 '무기'다. 덕분에 각종 예능프로그램으로부터 '섬의 러브콜'을 받아 올해 채널A '지구인 라이브' 등 6편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유행어가 된 '왓썸맨'을 간판으로 내건 유튜브 계정으로 지난해 2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며 식지 않은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H.O.T.' 토니안 ▶▶▶ 차분한 진행 실력으로 예능계 입지 확장

연예계 대표 동물애호가·성실의 아이콘 각종 동물 관련 프로그램 진행자로 나서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1996년 H.O.T.로 데뷔해 2001년 그룹 잠정 해체 이후 솔로 활동을 이어가며 굴곡이 많았지만

방송 경력은 꾸준했다. 침착한 성격의 차분한 진행 감각으로 조금씩 입지를 굳혀왔다. 작년 SBS 'TV 동물농장'에 새롭게 합류하는 등 진행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예계 대표 동물애호가로서 SBS플러스 '펫츠고! 댕댕트립' 등 각종 동물프로그램에 나섰다. 최근에는 웹 예능프로그램 'TL: 특라이브' 등을 맡으며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에도 도전하고 있다.



'젝스키스' 은지원 ▶▶▶ 올해만 예능 8편...영동한 '원조 예능돌'

'고교급식왕' 학생 눈높이 맞춘 진행 호평 까칠한 말투 후배들 챙기는 배려심도

1997년 그룹젝스키스의 멤버로 데뷔한, '원조 예능돌'의 대표주자다. 최근 종영한 tvN '강식당3'을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8편이다. 2007년 KBS 2TV '1박2일' 출연 당시 얻은 '은초당'이란 별명처

럼 생각을 거침없이 밝히는 자신감과 영동함을 강점으로 삼는다. 23년차 연예인이지만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려는 의지도 강하다. 최근 방송 중인 tvN '고교급식왕'에서 고등학생 출연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는 모습이 화제를 모았다. 까칠한 말투와는 달리 후배 연예인들을 살뜰히 챙기는 배려심으로도 대중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왜 다시 1세대 아이돌일까?

과감한 비키니 해초댄스 이효리 아니면 누가하리

노련미+다양한 연령층 흡수 장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무대를 주름잡았던 '1세대 아이돌' 출신들의 활약은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하다. 에너지 넘치고 풋풋한 매력을 지닌 10대 아이돌 사이에서 유난히 빛나는 활약상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연륜, 그로부터 배어나오는 '베테랑의 품격'이 그 힘이 된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노련함으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룹젝스키스의 장수원은 최근 tvN '놀라운 토요일-도레미파켓'에 출연해 능청스러운 만큼 '위기'를 받아 넘겼다. 한때 경직된 표현으로 놀림을 받았던 일명 '로봇 연기'에 대한 지적에 "나도 내 연기력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내놓으며 불쾌해하거나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들었다. 핑클의 이효리는 '캠핑클럽'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팬티에 해초를 매단 채 춤을 추며 몸을 내던지는 코믹함을 과시했다. 웬만한 젊은 아이돌로서는 엄두를 내지 못할 모습이었다며 "역시 이효리"라는 반응이 나왔다.

20년 이상 활동하며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여온 힘이다. 또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지닐 수 있도록 한 오랜 경험이 그 밑바탕을 이룬다는 평가다.

'1세대 아이돌' 출신들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선을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갓 데뷔한 아이들에 비해 인지도가 높아 중장년층에게도 익숙한 얼굴들이다. 이들의 전성기를 함께 한 팬들에게는 추억을 안겨줄 수 있다. 또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한 호기심의 대상으로 다가간다. 이들의 활약을 모아 놓은 영상은 '회귀' '보물' 등으로 불리며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과거사' 역시 프로그램의 화젯거리로 소비가 가능해 환영받고 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13일 "‘뉴트로’ 등 복고문화의 영향도 1세대 아이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들은 프로그램 적응력, 매끄러운 진행 능력이 뛰어나 출연자의 순발력이 필수적인 예능프로그램에서 재능을 더욱 발휘한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